

법 어

생명의 기운이 향기로운 꽃잎으로 허공을 장엄하고 만나는 얼굴마다 웃음이 가득한 이때에 모든 생명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 부처님은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에 이성환 경찰청장님의 아낌없는 후원과 많은 경찰불자님의 노력으로 여법한 봉축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신심 가득한 정성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인연으로 국민과 국가가 편안하고 지구촌 전체가 연꽃향기 가득한 평온하고 행복한 세상이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경찰은 시민들에게 가까운 이웃이고 벗입니다. 국민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이웃이 여러분입니다. 선한 인연을 지으면 선한 과보가 뒤따르는 것은 결코 깨지지 않는 가르침이기에, 여러분의 희생은 뜻깊은 보살행이자 선업의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병자를 돌보는 것은 곧 나를 돌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시민의 어려움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의 손발이 되어 힘든 일을 해결해주는 것 또한 부처님을 모시고 정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항상 과중한 업무로 고충이 많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여유를 찾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바로 국민과 국가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변함없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동료들과 화합을 이루어 즐거운 근무환경을 가꾸는 일에도 큰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살행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국가로 나아간다는 확고한 의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민의 행복을

수호하는 금강신장과도 같은 여러분의 투철함이, 새 정부 출범이라는 희망찬 순간에 마주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찰 불자 여러분을 비롯해 경찰 가족 전체의 건강과 평온을 기원합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불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7년 5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